

# 제주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생리·위생공간의 설비·기구 실태 및 행태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of Facilities and Behavior of the Sanitary Zones in Collective and Detached Houses in Jeju City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봉애  
제주관광대학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이정림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Bong-Ae Kim*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 Cheju Tourism College

*Instructor : Jeong-Lim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 Abstract >

In residential spaces, sanitary zones are where the most basic needs of human beings are met and are used by all members of the family. A high level of privacy is therefore required in their use. This research studies the current state of sanitary zones in collective houses and in detached hous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first, and then analyzes th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requirement levels of dwellers of each house in comparison so as to provide data to formulate a new design for sanitary zones that is suitable for each dwelling hous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questionnaire respondents were mostly in their 30s and 40s (99.1% in total), and lived in a nuclear family system (87.7%). (2) The number of sanitary zones was found to be more than 2 in 62% of collective houses and in 60.7% of detached houses, which leads us to

conclude that non-dwelling spaces are increasing in both types of houses. (3) Of the housing facilities, 13% of collective houses and 9% of detached houses were equipped with a bidet. Both percentages are very low but it needs to be noted that the percentage is relatively high in collective houses. In safety facilities, the ratio of houses furnished with safety handlers for the aged was very low in both types of houses. (4) The residents of collective houses showed high levels of dissatisfaction with regard to the problems of storage space and steam production, while residents of detached houses expressed high levels of dissatisfaction with regard to the heating system, colors of finishing materials, size, dampness, steam production, and storage space.

**주제어(Key Words):** 생리·위생공간(sanitary zones), 공동주택(collective houses), 단독주택(detached houses)

## I. 서론

### 1. 연구목적

현대의 건축물에서 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곳은 생리·위생공간으로서 욕실, 목욕탕, 화장실, 변소 등의 용어로 지칭된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 공간을 욕구위계설이론(Maslow, 1970)을 인용하여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기본공간으로서 그 의의를 뒷받침하였고, 더 나아가 생리·위생공간의 역할이 강조되어 쾌적한 주생활을 실현하게 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신축주택의 욕실규모, 마감, 색상 등에는 현대인의 관심과 욕실문화의 비약적인 발전이 나타나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욕실의 사용실태, 의식, 공간계획, 디자인에 대한 분석으로서 초점을 달리하며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위생생활행위 연구(정경숙, 1987), 욕실사용실태 분석(조명은, 1994), 욕실가구 연구(최순재, 1998)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욕실 실내디자인(윤현영, 2000), 욕실 리모델링(김남효, 2001), 디지털이미지를 이용한 욕실배색(정현원·이현수, 2003) 등의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생리·위생공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파트의 욕실이거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주택평면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어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극소수는 농촌주택의 욕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동일시기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의 비교 분석을 한 연구

는 더욱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생리·위생공간의 의식에 관한 연구도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동일지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공적인 공간이면서도 극히 사적으로 사용되는 생리·위생공간의 설비 및 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생리·위생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사용만족도, 계획요구도 분석을 목적으로하여, 거주자조건과 주거환경조건에 적합한 설비 및 기구를 보완하고 계획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생리위생공간의 변천

우리 나라의 변소와 목욕공간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개화기 이후부터 수세식 설비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일제시대부터는 일부의 주택에서 변소가 주택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 여러 단계의 발전을 계속하면서 변소와 목욕공간이 가까이 배치되고 1970년대 이후에는 통합되었다. 마당 한쪽에 위치하던 재래식 변소가 실내로 유입되어 수세식 화장실로 변모하게 된 사회적 계기는 1970년대 아파트의 대량공급이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현재의 욕실이라 볼 수 있다(김대년, 1999). 1980년대 이후에는 주택 내에 두 개의 욕실을 계획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욕실의 개념도 가족공용공간에서 개인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단순

한 생리위생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강관리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이영심, 1996).

## 2) 선행연구의 흐름

화장실론자들은 문명이 문자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화장실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남경태 역, 1997). 외국에서는 인간의 1단계 욕구충족 장소로서 화장실에 대한 연구가 우리 나라보다 훨씬 빨리 시작되었고, 우리 나라의 욕실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신경주, 1995).

생리·위생공간의 용어에 관한 연구로는 김대년(1999)의 소설에 나타난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과 관련용어의 변화 연구가 있다.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의식이나 사용실태 등에 관한 연구로는 이영심(1996)의 거주자가 요구하는 아파트의 욕실 연구, 정경숙(1988)의 아파트 욕실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김남호(2001)의 주택욕실의 리모델링 선호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생리·위생공간의 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로는 신경주 외(1989)의 입욕법 측면의 욕실공간에 관한 연구, 이영심 외(1995)의 아파트 욕실 평면의 변천에 관한 연구, 윤정숙 외(1997)의 감성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욕실공간계획법 연구, 김일섭(1998)의 아파트 주호에 있어 위생공간에 관한 연구, 이민정(2001)의 욕실변화에 따른 아파트 공간계획변화에 관한 연구가 있다.

생리·위생공간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의 연구가 많고, 최순재(1998)의 욕실가구에 관한 연구, 윤현영(2001)의 거주자 요구를 반영한 아파트 욕실공간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송윤경 외(2002)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욕실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연구, 정현원 외(2003)의 디지털 이미지 색채분석을 이용한 욕실공간 색채배색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생리·위생공간의 범위

생리·위생공간의 범위는 그 지칭하는 용어로서 설정하였다. 과거 한국주택의 생리·위생공간과 관련된 용어는 내측, 뒷간, 똥독간, 변소, 정랑, 축실, 화장실 등 32종류로 다양하였고, 1930~1950년에는 상류 주택에서 목욕간, 욕실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김대년, 1999). 최근에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toilet, lavatory, bathroom, powder room의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대년의 연구에서 언급된 전통주택에서 현대주택에 이르는 관련된 모든 공간을 포함하여, 욕조, 샤워시설이 있는 공간, 세면대, 변기가 있는 공간, 최근 등장하고 있는 세면실, 파우더룸까지를 생리·위생공간으로 설정하였다.

### 2.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범위

통계청의 작성기준에 의한 주택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 영업용건물내주택<sup>1)</sup>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조의 건축물이며, 공동주택은 벽,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고 있다(이광노, 송중석, 이연덕, 유희준, 윤도근, 1998). 또한 1999년 5월 9일자 시행된 개정건축법에서도 일조기준과 주차기준을 통일시켰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규모나 건축형태가 다세대주택과 같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가구주택과 영업용건물내주택은 전형적인 단독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의 실태와 만족도, 요구도를 분석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로 하였고 다가구주택과 영업용건물내주택을 이

1) 통계청은 2001년부터 비거주용건물내주택을 영업용건물내주택으로 명기하고 있다.

에 포함시켜 더 넓은 의미로서의 공동주택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 3. 조사항목의 선정 및 측정도구

생리·위생공간의 설비, 기구 및 액세서리는 예비조사에서 제시형과 기입형 문항을 통하여 파악된 총 82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중 이동성이 높은 물건을 제외하여 55개 항목을 결과자료로 제시하였다. 생리·위생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조명은(1994)의 아파트 거주자의 위생생활행위 실태 분석과 정경숙(1988)의 연구에서 언급된 사용실태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항목을 구성하였고 여대생들에게 질문후 추가하여 18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고, 배변, 탈의, 청소 등 기본행위는 제외하고 연구자가 의미있다고 판단된 13개 항목을 결과자료로 제시하였다.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사용만족도와 계획요구도는 김남효(2001)의 주택 욕실의 리모델링 선호 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와 윤정숙 외(1997)의 욕실공간계획을 위한 감성공학적 접근 연구, 이영심(1996)의 거주자가 요구하는 아파트의 욕실 연구를 참조하여 22개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제주도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재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통계분석하였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신제주시의 초등학교 1개교와 구제주시의 초등학교 1개교가 선정되었다. 신제주시 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개교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며, 구제주시 초등학교의 경우 전통적인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자료의 성격을 대표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나<sup>2)</sup>, 공동주택거주자의 설문지 회수율이 높아 2002년 12월 기준 제주시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sup>3)</sup>과는 약 10%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각 학교에는 400부씩 총 800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535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한 자료 중 부실기재 설문지를 제외하여 공동주택 324, 단독주택 122, 총

44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02년 4월~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WIN 10.0을 이용하였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의 설비실태와 관련행위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를 파악하였고, 사용만족도와 계획요구도는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고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거주자 및 조사대상주택의 특성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거주자의 연령분포는 30·40대가 주를 이루며, 학력은 아내를 기준으로 할 때 고졸과 대졸이 약 50% 정도의 분포를 보이며, 남편 직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직, 판매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이 약 90%이며, 월평균 소득수준은 200만원~400만원 정도가 약 73%를 이루고 있다.

거주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30~39평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20~29평이 27.2%이었고, 단독주택은 20~29평이 47.5%로 가장 많았으며 30~39평 15.6%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공동주택이 2년 미만 76.5%이었으며, 단독주택은 2년 미만 33.6%, 10년 이상 27.9%로 나타났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공동주택 61.7%, 단독주택 59%로 자가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제주도 전체 자가점유율<sup>4)</sup>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2) 건축년도는 신제주시 초등학교에서 수집된 자료는 2000년도 택지개발후 분양된 지역으로 3년 미만이며, 구제주시 초등학교에서 수집된 자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최초 입주자가 아닌 경우 정확한 건축년도를 알지못하여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3) 2002년 12월까지의 제주도 전체주택수는 70,205호, 공동주택 42,397호(60%), 단독주택 27,808호(40%)이지만, 단독주택에 병용주택, 상가주택 등 영업용건물내주택수가 포함된 수치이므로 순수한 단독주택의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제43회제주시통계연보).

<표 1> 거주자 및 조사대상주택의 특성

N=446(공동주택 324, 단독주택 122)

항 목		공동주택f(%)	단독주택f(%)	항 목		공동주택f(%)	단독주택f(%)
아내연령	20대	1( 0.3)	0 -	남편연령	20대	0-	1( 0.8)
	30대	221(68.2)	88(72.1)		30대	160(49.4)	58(47.5)
	40대	100(30.9)	33(27.0)		40대	159(49.1)	61(50.5)
	50대	2( 0.6)	1( 0.8)		50대	4( 1.2)	1( 0.8)
	60대	0 -	0 -		60대	1( 0.3)	1( 0.8)
아내학력	고졸	130(40.1)	70(57.4)	남편학력	고졸	69(21.3)	38(31.1)
	대졸	175(54.0)	48(39.3)		대졸	213(65.7)	72(59.0)
	대학원졸	19( 5.9)	4( 3.3)		대학원졸	42(12.9)	12( 9.8)
아내직업	전문직	33(10.2)	9( 7.4)	남편직업	전문직	39(12.0)	6( 4.9)
	판매직·관리직	56(17.3)	25(20.5)		판매직·관리직	74(22.8)	36(29.5)
	기술직	6( 1.9)	4( 3.3)		기술직	37(11.4)	16(13.1)
	사무직	58(17.9)	13(10.7)		사무직	141(43.5)	55(45.1)
	서비스직	18( 5.6)	8( 6.6)		서비스직	16( 4.9)	3( 2.5)
	1차산업종사자	0 -	0 -		1차산업종사자	6( 1.9)	1( 0.8)
	전업주부	149(46.0)	61(50.5)		무직	7( 2.2)	4( 3.3)
	기타	4( 1.2)	2( 1.6)		기타	4( 1.2)	1( 0.8)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 0.3)	0 -	가족형태 및 가족원수	핵가족	300(92.6)	101(82.8)
	100~199만원	34(10.5)	21(17.2)		확대가족	24( 7.4)	21(17.2)
	200~299만원	164(50.6)	66(54.1)		2인	5( 1.5)	1( 0.8)
	300~399만원	73(22.5)	23(18.9)		3~4인	206(63.6)	53(43.4)
	400~499만원	22( 6.8)	3( 2.5)		5~6인	105(32.4)	60(49.2)
500만원 이상	30( 9.3)	9( 7.4)	7~8인 이상	8( 2.5)	8( 6.5)		
거주면적	20평 미만	6( 1.9)	19(15.6)	거주기간	2년 미만	248(76.5)	41(33.6)
	20~29평	88(27.2)	58(47.5)		2~3년	30(9.3)	14(11.5)
	30~39평	204(63.0)	19(15.6)		4~5년	6(1.9)	13(10.7)
	40~49평	19( 5.9)	13(10.7)		6~7년	13(4.0)	9( 7.4)
	50~59평	3( 0.9)	7( 5.7)		8~9년	12(3.7)	11( 9.0)
	60평 이상	4( 1.2)	6( 4.9)		10년 이상	15(4.6)	34(27.9)
주택 점유형태	자가	200(61.7)	72(59.0)	생리·위생 공간의 수	1개	123(38.0)	48(39.3)
	전세	94(29.0)	23(18.9)		2개	189(58.3)	54(44.3)
	사글세, 월세	21( 6.4)	19(15.6)		3개	10( 3.1)	15(12.3)
	기타	9( 2.7)	8( 6.6)		4개 이상	2( 0.6)	5( 4.1)

생리·위생공간의 수는, 2개소인 비율은 공동주택 58.3%, 단독주택 44.3%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으며, 3개소 이상의 비율은 공동주택 3.7%, 단독주택 16.4%로서, 단독주택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욕외화장실을 두거나, 2층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 층별로 생리·위생공간을 두었을 가능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신경주·정경숙(1989)의 연구와 조명은(1994)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원수가 많아질수록 희망하는 생리·위생공간의

수가 증가하였고, 욕실수는 가족원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Kira, 1976; Faulkner, 1989; 이영심, 1996)들과 비교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욕실의 수를 늘리는 것은 가족원간의 충분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고려

4) 2002년 12월까지의 제주도 전체 자가점유율은 71.3%이다 (제43회제주시통계연보).

해 보아야 할 사항이나, 주거공간내에서 비거주공간 면적의 증가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디자인상의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생리·위생공간 설비 및 기구실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설비 및 기구실태는 <표 2>와 같다. 주택전체에 관한 설비 중 난방설비는 가스설비와 석유설비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으며, 생리·위생공간에 관한 설비 중 샤워용 설비와 화장 관련 설비의 보유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 실태는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가스설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석유설비와 전기설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냉난방보조기구로 라지에이터의 보유율은 공동주택, 석유난로는 단독주택이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생리·위생공간의 설비에서 환풍기는 공동주택의 보유율이 높게 나타나 강제환기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창문 설치는 단독주택이 9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자연환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탈취용방향제는 단독주택의 보유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목욕관련설비 및 기구에서 사우나 설비는 공동주택 3.7%, 단독주택 9%로 일부에서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송윤경·박영순(2002)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우나겸용 밀폐식샤워부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욕조와 샤워부스의 보유율은 공동주택에서 높게 나타났고, 샤워커튼, 목욕용의자, 탈의바구니의 보유율은 단독주택에서 높게 나타났다.

화장관련기구에서 화장대용의자는 공동주택에서 높은 보유율을 나타냄으로써 바닥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파우더룸 성격의 생리·위생공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생리·위생관련기구에서 소변기는 단독주택에서 조금 높은 보유율을 나타냄으로써 욕외화장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탁관련기구에서 세탁기는 단독주택의 생리·위생공간내 설치 비율이 높았고, 이는 가사작업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수납관련기구에서 불박이장, 수납장은 공동주택이 10%이상 높은 보유율을 나타

냈다.

그 외에 비데의 보유율은 공동주택 13%, 단독주택 9%로 공동주택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이는 김남효(2001)의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데사용율이 12.5%로 나타난 비율과 유사하다.

생리·위생공간내의 장애인이나 노약자용 안전손잡이 설치율은 전체 평균 1.5%로서, 건축주나 건설업자의 안전장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일섭(1998)의 연구에서 보면 노약자들은 바닥의 미끄러움을 생리·위생공간 사용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지적하였고, 윤현영(2001)은 욕실내에서 아동이나 노인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을 지적하였는데, 안전손잡이의 의무설치나 노인복지차원에서 고령자 동거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3. 생리·위생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표 3>은 생리·위생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분석한 것으로서, <표 2>에서와 같이 관련설비의 증가로 실제 미용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휴식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장하기와 화장지우기는 공동주택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설비실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동주택의 생리·위생공간내 화장관련기구 보유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세탁행위는 단독주택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 2>에서 단독주택의 생리·위생공간내 세탁기 보유율이 높은 결과와 일치한다. 김남효(2001)의 연구에서도 공동주택은 다용도실의 설치로 욕실내 세탁행위가 줄어들었고, 욕실이 본래 기능을 하는 것을 거주자들은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폐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위해서는 생리·위생공간과 연결된 세탁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용관련행위는 전체평균 36.0%, 휴식관련행위는 전체평균 8.7%로 생리·위생공간에서의 미용관련행위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휴식을 위한 장소로서의 활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표 2> 생리·위생공간의 설비·기구 및 액세서리의 실태

N=446(공동주택 324, 단독주택 122)

항 목			공동주택		단독주택	
			보유(f)	보유율(%)	보유(f)	보유율(%)
주택전체	난방설비	석유설비	92	28.4	93	76.2
		가스설비	215	66.4	7	5.7
		전기설비	13	4.0	24	19.7
	냉난방보조기구	라지에이터	27	8.3	3	2.5
		석유난로	5	1.5	7	5.7
		에어컨	73	22.5	26	21.3
	선풍기	126	38.9	52	42.6	
생리위생 공간	기본설비	창문	197	60.8	110	90.2
		경사천정	36	11.1	19	15.6
	조명설비	전체조명설비	184	56.8	68	55.7
		부분조명설비	116	35.8	42	34.4
	환기기구	환풍기	259	79.9	42	34.4
		공기청정기	30	9.3	12	9.8
		탈취기	9	2.8	3	2.5
		탈취용방향제	75	23.1	41	33.6
		제습기	20	6.2	6	4.9
		방습제	29	9.0	16	13.1
	목욕관련설비 및 기구	샤우나설비	12	3.7	11	9.0
		일반욕조	255	78.7	50	41.0
		항온욕조	6	1.9	1	0.8
		기포욕조	1	0.3	1	0.8
		제트욕조	1	0.3	1	0.8
		샤워기	279	86.1	107	87.7
		샤워커튼	40	12.3	6	5.49
		샤워부스	73	22.5	10	8.2
		목욕용의자	48	14.8	33	27.0
	탈의바구니	51	15.7	35	28.7	
화장관련기구	거울	309	95.4	111	91.0	
	화장대	161	49.7	50	41.0	
	화장대용의자	64	19.8	10	8.2	
	헤어드라이기	174	53.7	56	45.9	
	마사지기구	20	6.2	11	9.0	
생리·위생관련기구	양변기	324	100.0	83	68.0	
	좌변기	88	27.2	36	29.5	
	소변기	0	0	10	1	
	비데	42	13.0	11	9.0	
세탁관련기구	세탁기	227	70.1	100	82.0	
	건조기	26	8.0	9	7.4	
	건조대	139	42.9	50	41.0	
수납관련기구	불박이장	128	39.5	26	21.3	
	수납장	148	45.7	42	34.4	
	벽걸이형소형수납장	139	42.9	56	45.9	
	세제진열용선반	168	51.9	60	49.2	
	장식장	77	23.8	22	18.0	

〈표 2〉 계속

N=446(공동주택 324, 단독주택 122)

항 목			공동주택		단독주택	
			보유(f)	보유율(%)	보유(f)	보유율(%)
생리위생 공간	안전기구	노약자용안전손잡이	2	0.6	3	2.5
		바닥미끄럼방지장치	72	22.2	22	18.0
	음향기구	에티켓벨	22	6.8	8	6.6
	청소기구	청소도구	184	56.8	74	60.7
		청소용클리너	210	64.8	80	65.6
	액세서리	자연화초	68	21.0	32	26.2
		인조화초	60	18.5	16	13.1
		그림	65	20.1	28	23.0
		달력	62	19.1	25	20.5
		사진	62	19.1	26	21.3
장식용소품		130	40.1	42	34.4	

〈표 3〉 생리·위생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N=446(공동주택 324, 단독주택 122)

항 목		공동주택		단독주택	
		행동(f)	행위율(%)	행동(f)	행위율(%)
미용	화장하기	45	13.9	5	4.1
	화장지우기	212	65.4	52	42.6
	미용 마사지	65	20.1	23	18.9
	머리손질·세팅	143	44.1	44	36.1
	면도	197	60.8	69	56.6
휴식	음악듣기	3	0.9	1	0.8
	사색	20	6.2	10	8.2
	잠자기	5	1.5	2	1.6
	스트레칭·가벼운체조	7	2.2	3	2.5
	신문·책 읽기	156	48.1	49	40.2
	게임·오락	1	0.3	0	0.0
	전화하기	19	5.9	4	3.3
기타	세탁	80	24.7	66	54.1
	기타	9	2.8	5	4.1

외에 신문·책읽기 등도 전체 평균 44.1%를 나타냄으로써 조명설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높은 행위를 우선적으로 하는 설비와 디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이영심·신경주(1995)의 연구에서 지적한 생리·위생공간내 탈·착의 행위가 있었고, 윤정숙 외(1997)의 연구에서 지적한 음악청취, 간단한 운동행위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송윤경·박영순(2002)의 연구에서 지적한 운동기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는 극소수로만 나타났다.

#### 4.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사용만족도와 계획요구도

〈표 4〉의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사용만족도는 조명, 배수설비, 휴지걸이 위치, 손씻는 위치 등 기본설비에 대한 만족도만 조금 높고, 계획요구도는 인테리어와 관련한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사용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8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난방설비, 조명, 마감색상, 면적, 수납공간, 휴지걸이 위치, 급수장치, 손씻는 위치에 있어서, 공동주택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계획요구도는 비데설치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공동주택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2〉의 결과에서 비데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대도시의 비데사용율(김남효, 2001)과 비슷함을 감안할 때, 비데설치는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요구도의 경우 인테리어, 창문설치, 수납공간 확보에서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4점 이상의 점수로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리·위생공간의 2개소 이상 설치도 강한



<표 4>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사용만족도 및 계획요구도

N=446(공동주택 324, 단독주택 122)

항 목		공동주택		단독주택		t 값
		M	SD	M	SD	
사용 만족도	환기 설비	3.44	1.04	3.30	1.08	-1.257
	난방 설비	3.00	1.24	2.34	1.14	-5.130***
	조명	3.77	0.91	3.28	1.04	-4.740***
	마감 색상	3.39	1.15	2.80	1.15	-4.749***
	면적	3.18	1.24	2.87	1.13	-2.429*
	안전성	3.16	1.17	3.12	1.03	-0.359
	배수 설비	3.63	1.06	3.62	1.13	-0.085
	제습 정도	3.15	1.25	2.93	1.32	-1.619
	수증기 발생정도	2.61	1.26	2.52	1.11	-0.753
	수납공간	2.89	1.26	2.53	1.12	-2.761**
	휴지걸이 위치	4.03	0.94	3.57	1.13	-4.056***
	급수 장치	3.70	0.96	3.39	1.06	-2.983**
손 씻는 위치	4.00	0.90	3.56	1.19	-3.692***	
계획 요구도	두 곳 이상 설치	4.25	1.16	4.13	1.14	-0.968
	난방 설비	3.96	1.19	4.05	1.08	0.726
	인테리어	4.41	0.81	4.43	0.84	0.309
	창문 설치	4.45	0.86	4.60	0.66	1.680
	수납공간 확보	4.30	0.81	4.29	0.83	-0.108
	비데 설치	4.25	0.97	3.87	1.04	-3.591***
	에티켓 벨 설치	3.90	1.12	3.77	1.00	-1.133
	전화화장실 설치	3.48	1.34	3.70	1.09	1.792
	남녀 구분	3.00	1.32	3.24	1.22	1.731

\*p<.05 \*\*p<.01 \*\*\*p<.001

요구를 나타냈는데, 가족용·부부용욕실 설치는 최근 주택설계의 경향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거주공간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설계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난방설비 요구도 높게 나타났는데, 윤정숙 외(1997)의 연구에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 90% 이상이 생리·위생공간내 난방설비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사용만족도의 경우 3점 미만의 점수는 단독주택에서 많았는데, 난방설비, 마감색상, 면적, 제습정도, 수증기 발생정도, 수납공간이 불만족 항목이었다. 특히 생리·위생공간의 마감색상의 역할은 정현원·김현수(2003)가 지적하였듯이 이질적이고 다양한 설비와 기구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총괄적인 요소가 되므로 거주자의 만족도와 선호도에 근거한 색채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은 수증

기 발생과 수납공간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환기문제와 수납공간의 면적 확대 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설비·기구 실태 및 행태 관계분석

<표 2>, <표 3>, <표 4>의 결과를 분석하면, (1)공동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은 미용관련 설비의 보유율이 높고 미용관련행동의 행위율도 높으므로 주택설계과정에서 미용행위의 동선 흐름이 생리·위생공간과 이어지는 공간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공동주택 거주자들은 현재의 생리·위생공간에 대해 단독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계획요구도 높게 나타나므로, 미용행위와 관련하여 거울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불박이식 드라이기설치, 전체조명과 부분조명의 복합설치 또

는 조도조절기의 설치 등으로 화장하기, 신문·책읽기, 사색 등 행위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단독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은 세탁관련설비의 보유율이 높고, 세탁행위율도 높게 나타나므로 가사작업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공동주택에 비해 휴식, 미용관련행위 장소로의 활용도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용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열악한 환경임을 알 수 있는데 계획요구도의 점수가 높은 만큼 거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생리·위생공간 리모델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통적으로는 안전설비 및 기구 보유율이 낮으므로 안전설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5)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면서 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수납공간을 확대시키는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유형별 생리·위생공간의 설비 및 기구의 실태, 행위시 사용만족도 및 계획요구도를 분석한 것으로 주요 결과로는 (1) 공동주택은 가스설비, 라지아이터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단독주택은 석유설비, 전기설비, 석유난로 보유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 생리·위생공간의 설비 및 기구에서 공동주택이 높은 보유율을 나타낸 것은 환풍기, 일반욕조, 샤워부스, 화장대용의자, 붙박이장, 수납장이며, 단독주택은 창문, 탈취용방향제, 사우나설비, 샤워커튼, 목욕용의자, 탈의바구니, 소변기, 세탁기설치에서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안전에 관한 설비는 모두 낮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3) 생리·위생공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화장하기, 화장지우기 행위는 공동주택에서 높게 나타났고, 세탁행위는 단독주택에서 높게 나타났다. (4)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8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난방설비, 조명, 마감색상, 면적, 수납공간,

휴지걸이 위치, 급수장치, 손씻는 위치가 공동주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계획요구도는 비데설치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공동주택에서 높게 나타났다. (5) 설비실태 및 행태를 정리해보면 생리·위생공간의 계획에는 미용관련설비 및 기구의 보완이 필요하며, 수납공간의 확대, 안전설비를 보장하는 디자인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현대와 같이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거주공간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생리·위생공간의 확장은 거주면적 축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거주자들이 요구하는 생리·위생공간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 장소일 뿐만 아니라 휴식의 장소와 에너지 재충전의 장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거주자의 욕구가 반영된 설비와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거주자의 욕구가 반영된 디자인은 거주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및 주거만족도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이나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노인 혹은 장애인 등 거주자특성에 따른 설비방법,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계획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대년(1999). 소설에 나타난 한국주택의 생리위생공간과 관련용어의 변화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7(10).
- 김남호(2001). 주택 욕실의 리모델링 선호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
- 남경태 역(1997). Julie L. Horan 저(1996). *1.5평의 문명사*. 서울: 푸른 숲.
- 김일섭(1998). 아파트 주호에 있어 위생공간에 관한 연구. *동의대 산업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연(1990). 주택의 욕실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

- 석사학위논문.
- 송윤경, 박영순(2002). 아파트 모델하우스 욕실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2.
- 송은화(1990). 소형 아파트를 위한 욕실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신경주, 정경숙(1989). 한국인의 입욕법 측면에서 본 아파트 욕실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7. 한양대 한국생활과학연구소.
- 윤정숙, 전영미, 김수경(1997). 욕실공간 계획을 위한 감성공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5(3).
- 윤현영(2001). 거주자 요구를 반영한 아파트 욕실공간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노, 송종석, 이연덕, 유희준, 윤도근(1998). 건축 계획. 서울: 문운당.
- 이민정(2001). 욕실변화에 따른 아파트 공간계획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심(1996). 거주자가 요구하는 아파트의 욕실.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이영심, 신경주(1995). 서울 지역 아파트 욕실 평면의 변천. 한국주거학회지, 6(2).
- 이현주(1984). 한국 아파트 거주자들의 욕실 공간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전완길 외(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서울: 도서출판 장원.
- 정경숙(1988). 아파트 욕실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정현원, 이현수(2003). 디지털 이미지 색채분석을 이용한 욕실공간 색채배색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
- 제주시(2003). 달라진세대 새풍속도 목록문화. 열린제주시정, 143.
- 제주시(2003). 통계연보, 43.
- 조명은(1994). 아파트 거주자의 위생생활행위 실태 분석.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최순재(1998). 욕실가구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최형선(1987). 생활문화 측면의 한국 주택내 생리위생공간의 변천과 전망.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A. H. Maslow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Y.: Harper.

(2004년 3월 8일 접수, 2004년 6월 24일 채택)